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시편 50:1-2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환난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존귀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감사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존귀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감사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 3. 알고 있는 율법을 행치 않는 위선을 책망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16절).

시인은 성도들이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않는 위선을 책망합니다. 저들의 잘못은 율법에 무지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는 성경을 무시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알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1절).

하나님의 심판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질을 하고 감음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으며 하나님은 그런 죄를 상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21절).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저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죄를 낱알이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외치는 것은 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양을 제물로 드렸으므로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을 암송하고 있으므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와 위선의 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형식에 매여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위선자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조롱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잊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위선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찢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 시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악관으로 음악인이며 시인이고 선지자였던 사람으로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12편 실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서정적이라면 아삽의 시는 엄격한 도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묘사하며 형식적 예배자들과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 1. 하나님은 심판장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벧전 4:17).

시편 50편의 주제는 벧전 4:17에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심판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행패를 부려도 응징이 없고 의인이 유린을 당해도 신원이 없는 무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력자인가 하면서 실망에 빠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낙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삼키는 불과 같은 광풍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으로 몰리거나 악인을 악인으로 떠받드는 모순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엘, 엘로힘, 여호와). 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해 뜬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동에서 서까지, 위 하늘과 아래 땅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형식적 예배자들에 대한 책망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5절)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한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형식은 갖추어졌는지는 모르나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8절).

형식적 예배자들의 예배에는 진정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린 횟수나 제물만 가지고는 만족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15절)

환난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15차 김치신학세미나 특별헌금

## -1구좌: 10만원 / 4월29일(주일)-

오는 5월28일(월)에 개강하는 제15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한 특별선교헌금을 다음 주일(4월29일)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한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 교회 지도자들을 깨워 복음사역에 열심을 갖게 하는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하는 교역자들의 왕복 항공료와 이곳에 체류 중 숙식 문제를 위해 온 교회가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김치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1구좌에 10만원으로 하고 정성껏 바치되 형편에 따라 1/2구좌(5만원), 1/3구좌(3만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참여 못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해 온 교회 전통에 따라 금년에도 풍성한 헌금과 기도가 모여져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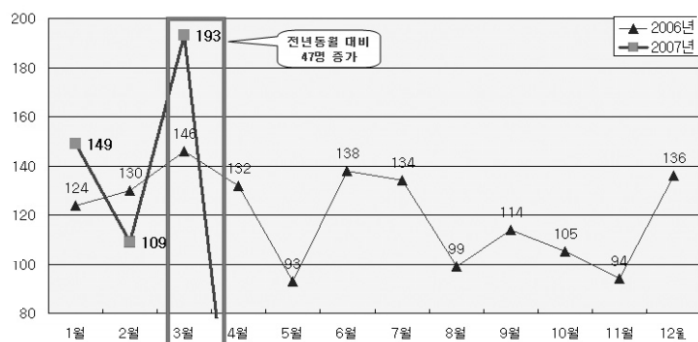
# 100만인 전도운동 가시적 성과 보여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을 다시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에 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그 전도의 열매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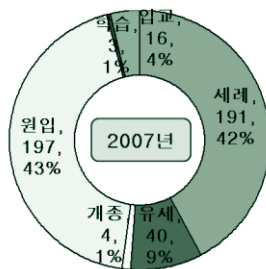
표1에 의하면 작년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성도가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교회 성도들의 전도에 의해 등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가족의 구성을 보면(표2) 새로이 주님을 영접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원입 및 개종 교인이 44%로 나타나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시민이 되도록 기도한다.



<표1>



<표2>

# 찬양대양성반 16기 수료 / 17기 개강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6기 찬양대양성반(지도 박정선 장로) 7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한다. 또한 17기 찬양대양성반이 다음 주일(29일) 오후 1시 601호에서 개강한다. 찬양대양성반은 우리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과정으로 7주 동안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배우게 된다.

오늘 수료하는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윤희 구연호 김규환 김무선 김수진 김 원 김정은 김종철 김형희 박경정 박나영 박선주 박희래 서한석 송광호 양득춘 양정미 유덕자 유성인 유 신 유을상 이광영 이미숙 이승자 이영숙 이인보 이정일 이화진 이효정 정동학 정용문 진경자 최영희 이상33명

# 4월 개강 열린프로그램 금주 마감

## 아직 기회는 열려있어

4월 중에 개강한 열린프로그램의 신청이 금주 중에 마감된다. 이번 열린프로그램은 교회 사정에 맞추어 3월에 개강하는 프로그램과 4월에 개강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개강하여 3월 개강 프로그램은 현재 70% 정도 일정을 진행하여 5월 중에 종강하며, 4월 개강 프로그램은 금주 중에 신청을 마감한다.

아직 기회가 열려있는 4월 개강 열린프로그램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로 본인의 여가 활용과 전도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성경1천독대장정

#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포스니라

서울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탈북자 신혼부부가 최근 함께 성경 1독을 끝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철훈(27) 김영복(29)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 2003년 디아스포라부 설립 당시 지인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남편 김철훈 성도는 "사실 처음엔 서울교회에 대해 그냥 탈북자를 도와주는 교회 가운데 하나쯤으로 생각했는데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깊이 있는 성경 강해, 또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서울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

<북침물장수>로 유명한 함경남도 북청이 고향인 김철훈 성도는 고교생 때 탈북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했고, 이때 집종적인 성경 읽기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싹이 났다. 특히 선교사들의 강권으로 성경데이프를 신약 80번, 구약은 10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으며 통독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 뜻도 모른 채 그냥 살 길을 주신 선교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지만, 어느 날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포스니라'라는 사무엘상 16장7절 말씀에 큰 감동 받고 나같이 보잘 것 없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접했습니다."

부인 김영복 성도는 부모님과 함께 지난 97년 탈북한 뒤 중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어느 집사님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남한에 온 뒤 지난해 2월 이종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한 이들 부부는 현재 함께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후 한 살 된 딸(사라)을 키우고 있다. 아직 남한 생활 적응에 힘든 점이 많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이들은 말한다.

특히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성경통독을 작정하고 지난달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석해 4박5일 동안 1회 통독을 한 뒤 교회에 보고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유희에 넘어가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조..."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에서 탈출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이들 탈북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한다.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를 파송하며...

#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되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행 28:28)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지리라”고 하신 잠언 말씀처럼 먼저 행동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준비가 다 되고, 계획이 다 섰기 때문에 행동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15일) 찬양예배 때 있었던 선교사 파송식에서 김용진 선교사는 5명의 파송 선교사를 대표한 답사를 통해 차분한 어조로 기도 부탁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파송식에는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전했다. 또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의 본거지인 장대현교회의 전도사 출신이자, 21년간 중국 선교로 헌신했던 방지일 영등포교회 원로목사(올해 97세)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방 목사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안수를 받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해선 안돼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강조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날 파송된 선교사들까지 합해 모두 12개 지역에 27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오는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을 파송한다는 서울교회의 비전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교회 창립 멤버로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던 김용진 선교사는 지난 96년 미국으로 건너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한 뒤 목사가 됐다. “범죄학” 박사이기도 했던 그는 한국에 있을 당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안수를 받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해선 안됩니다**

부터 교도소 선교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중 교도소 환경이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재소자 선교의 부르심을 받

았다. “아프리카 재소자 선교의 핵심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즉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교도소는 단지 재소자들이 범죄를 안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막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며 어떤 의미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재소자들이 범죄를 안 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화시키라는 것입니다.”라고 김 선교사는 말한다.

김 선교사는 부인 황경혜 선교사와 함께 우선 아프리카 남동부 ‘말라위’로 가서 말라위 정부가 운영 하는 교도소의 교정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하게 된다.

불안한 치안사정과 말라리아 등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땅으로 떠나면서 김용진 황경혜 부부 선교사는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각별한 기도를 부탁했다. “교도소는 어찌 보면 사탄의 하수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파괴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종일, 백순미 부부 선교사는 현재 의정부 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한편 대학에서 터키어를 전공하고 이스타불 대학에서 터키 역사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지난 88년부터 16년간 터키에서 살았던 김종일 선교사는 현재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터키어도 가르치고 있다. 김 선교사는 향후



터키에 현지인 양육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해 그 곳에서 교수로 일하며 선교하는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치 세미나에 터키어 통역요원으로 지원했다가 선교사 파송까지 받게 됐다며 감사했다. 김 선교사는 성도들에게 “터키는 최근 들어 선교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고 지난 18일에도 급진 회교도들이 성경을 판매, 보급하는 기독교도들의 목을 잘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등 때때로 선교지의 환경이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현지에는 올바른 신학관을 가진 현지 리더들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놓고 기도해주시시오.”라고 말했다. 또

신앙을 갖게 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것과, 이들이 한국에서 주일에 일하지 않고 주일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부탁했다.

동아시아로 파송된 서흥위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그 전에 파송한 홍의만 윤혜경 선교사의 추천으로 지난 2005년 한국에 와서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했다. 2년여 동안의 공부를 끝낸 서 선교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동아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다.

서 선교사는 향후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교 강의와 함께, 특히 청소년 사역에 소망이 있다. “현지에는 모태신앙은 거의 없고 주로 2-30대 청년시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나라의 미래인 만큼,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주일 예배만을 지키는 데서 머물지 않고 방학 기간 중 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성경말씀을 가르칠 계획이라면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김민철(편집부)

만민에게 전도-선교사 파송을 받으며...

#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김용진 선교사



저는 "나를 따르라"시며 십자가를 메고 걸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자가 되어, 죄인을 위해 간구하시는(롬 8:34) 대언자(1요 2:1) 예수님의 뒤를 따라 범죄자와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의 옹호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처지에 놓인 아프리카 극빈국의 재소자의 옹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누구의 동정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또 이들에게서 비정하게 눈을

돌려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만드는 독특한 부류가 이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순례자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소원합니다.

김종일 선교사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싸움은 십자가와 초승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초승달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초승달이 떠 있던 밤이었고 달이 해가 있음을 증거하고 밤을 비추는 것 같이 초승달은 어둠을 비추는 알라의 영광이요 광채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시 그 땅으로 나갈 때까지 한국에서 머물며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며 살아가는 적지 않은 무슬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지

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自)문화권에서 타(他)문화권 선교사역을 경험하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은 끝없는 영적 전쟁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을 믿음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조금 더 수고하여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진정한 기독교 선교의 승리가 그 땅에 선포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홍위 선교사



예수님의 부활을 송축하는 복된 4월, 개나리 라일락이 77꽃의 봄날에 장애우들의 행복한 찬양과 더불어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별레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위해 빛을 발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작은 등대되어

어둠에서 해매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과 온 영혼이 주님께 사로잡힌바 된 줄 압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 헌신하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걸음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뒤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 찬양예배 특별순서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이준봉 선생(추계에 대 강사의 바리톤 독창과 박성수 선생(아멘관현악단의 첼로 독주로 준비된다.

이준봉 선생은 '십자가 그늘 밑에'를 박성수 선생은 J. C. Bach. six suites No 5. Prelde. Cello.를 각각 바리톤 독창과 첼로 독주로 하나님과 성도들께 들려드립니다.

### 등정

■ 이종윤목사는 23일(월) 한국기독교 학술원 이사회, 26일(목) 복음신앙동지회를 각각 소집하고, 총회 사학법 재개정 위한 특별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당회는 교구위원장, 4교구장에 김영준 장로를, 한기족한마음 체육대회 준비위원장에 오정수 장로를, 은빛 찬양대 지휘에 박래경 집사를, 피아니스트로 홍혜란 선생을 각각 임명하였다.

■ 특녀 : 이하림 성도, 지민희 성도 가정(2교구)

■ 주간 식당 봉사 : 도르가 전도회(4.22) 루디아전도회(4.29)

■ 금주의 식사 : 하인선 집사 남태순 권사 가정 (개원 감사)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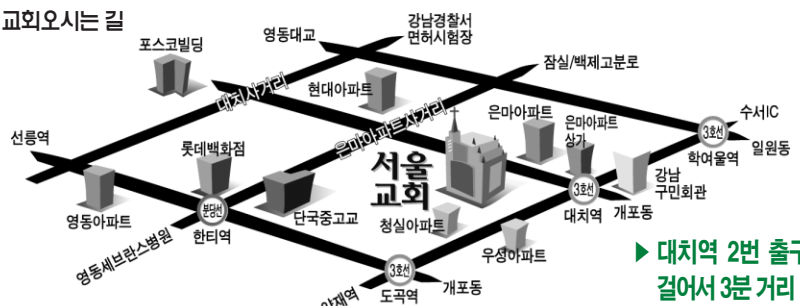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살림경로대학 열린프로그램 들을 위하여
4. 목회자 신학세미나, KIMCHI 세미나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